

최근의 주요 고용 변화에 대하여

남재량*

고용 서프라이즈! 얼마 전 박재완 장관이 이 한마디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 사정을 축약해서 잘 알려준다.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분명하나 신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당분간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고용 문제이자 일자리 문제이다. 그만큼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요한 몇 가지만 들여보자. 먼저 우리 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제조업 부문的高용은 경기와 함께 변동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놓여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시화됨에 따라 50~60대 고용에 일대 변혁이 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의 증가도 고용 변화를 주도하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문제들도 함께 얽히고설키고 있어서 고용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대한 전망, 나아가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할수록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찬찬히 뜯어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1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한 제조업 고용은 단기적인 등락을 경험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제조업 고용은 계속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돌연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를 과연 새로운 흐름인 추세변화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고용 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추세변화로 본다면 이후 고용에 대한 전망 자체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매함과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것이 추가적인 분석이다. 만약 제조업 고용 변화를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고용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번 호 특집이 중요한 이유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중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di.re.kr).

10%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가파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마침내 20%를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었으며 최근 들어 더욱 급격하다. 그런데 중고령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를 넘어서는 현상이다. 2003년 이후 중고령자의 고용률 자체가 다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5~59세 고용률은 2006년 이후 불과 5년 만에 4.2%포인트나 상승하였다. 최근 10여 년을 보면 증가한 중고령 취업자 가운데 약 40%가량이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임시직 종사자도 30%를 바라보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중고령자의 고용보험 취득 상황을 보면 경비 및 청소 관련 직업인 경우가 압도적이어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여러 움직임들은 향후 중고령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급격한 변화의 일부를 미리 보여주는 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에서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자영업자 고용 비중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하락추세였다. 그런데 2011년 8월부터 자영업자 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달을 거듭할수록 증가 규모가 커져 2012년 7월에 이르면 20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변동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추세의 역전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고령화 등을 염두에 둔다면 자영업자의 증가를 추세변화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일시적인 증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사실이다. 추가적인 분석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이유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즉 제조업 고용, 중고령자 고용, 자영업 고용 문제 외에도 청년, 여성, 학력별 고용 상황들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고용을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위의 세 가지 문제들이 특히 중요하다.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책들을 마련한다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가능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한 여러 특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KLI**